

2020년 1월 28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우한 폐렴 사태 확산 여파로 부진 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글로벌 위험 수위 수정(보통→높음)

미 증시 변화 요인: 우한 폐렴→중국 경기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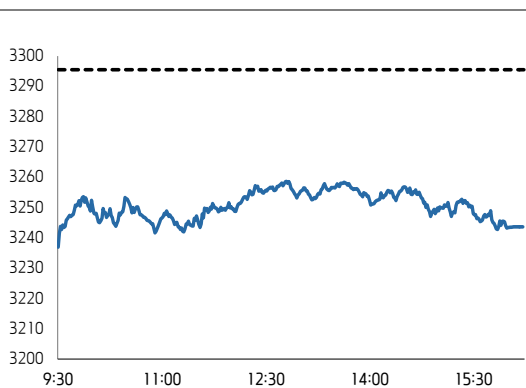
미 증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 사태 확산 여파로 하락 출발. 특히 경제 활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로 소비재, 여행, 물류, 에너지 업종은 물론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반도체 관련주를 비롯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반면,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임(다우 -1.57%, 나스닥 -1.89%, S&P500 -1.57%, 러셀 2000 -1.09%)

연휴기간 미국에서는 다섯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하는 등 글로벌 각국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임. 특히 국제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글로벌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수정하는 등 사태 확산 우려를 높인 점도 부담. 문제는 이러한 요인이 미 경제를 지탱하던 소비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이 부각되고 중국 춘절 연장 여파로 경기 둔화 이슈로 확산될 여지가 높아졌다는 점. 이 결과 위험자산 선호심리 급격하게 위축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해 주목할 부분이 있음. 지난 2003년 사스 사태 2015년 메르스 사태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슈가 주식시장 위축을 불러왔다는 점. 다만, 당시에는 IT 버블 후유증(2001~2003년), 이라크 전쟁(2003년), 그리스 사태(2015년), 위안화 급격한 절하(2015년) 등 새로운 이슈가 부각된 여파가 더 컸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폭은 새로운 리스크 부각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현재 알려진 리스크는 미-중, 미-EU 무역협상 불확실성, 미 대선 및 정치 불확실성, 브렉시트 여파, 중동 리스크 등이 있음. 그러나 이는 최근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거나 시간이 필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영향은 제한. 오히려 S&P500 기준 12m Fwd PER 이 5년 평균(16.7 배)을 훌쩍 넘는 18.6 배를 기록하는 등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 증시는 작년과 올해 상승폭이 컸던 종목 위주로 매물이 출회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를 감안 이번 주 애플(28일), MS, 페이스북(29일), 아마존(30일)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예상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이상 이를 빌미로 매물 출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46.13	휴장	홍콩항셱	27,949.64	휴장
KOSDAQ	685.57	휴장	영국	7,412.05	-2.29
DOW	28,556.72	-1.49	독일	13,204.77	-2.74
NASDAQ	9,144.94	-1.82	프랑스	5,863.02	-2.68
S&P 500	3,245.77	-1.51	스페인	9,366.30	-2.05
상하이종합	2,976.53	휴장	그리스	936.25	-1.31
일본	23,343.51	-2.03	이탈리아	23,416.13	-2.3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91%

마이크론(-4.07%), 인텔(-4.06%), NVIDIA(-4.10%), AMAT(-4.76%), 온 세미컨덕터(-5.32%) 등 반도체 업종은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경제 활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로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특히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중국발 수요 둔화 우려가 높아진 점이 영향을 줬다. 이 여파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91% 하락했다. 유니온퍼시픽(-3.97%), CSX(-1.99%) 등 철도 물류회사는 물론 델타항공(-3.37%), 유나이티드 항공(-5.21%) 등 항공사, 원리조트(-8.06%), 카니발(-4.71%) 등 카지노 회사들, 스타벅스(-3.59%)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커피 회사, 부킹 홀딩스(-2.75%) 같은 여행사 등도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매물 출회되며 급락했다.

코노코필립스(-2.52%), EOG리소스(-4.02%) 등 에너지 업종은 원유 수요 부진 여파로 하락했으며,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애플(-2.94%), 브로드컴(-4.62%), 스카이웍(-4.44%), 아나로그디바이스(-4.56%) 등도 부진했다. 반면, 임상 관련 회사인 모데르나(+7.67%)는 지난 주 전염병 대비 혁신 협회와 새로운 협력을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했다. 길리어드사이언스(+1.08%) 등 바이오주, 화이자(+0.85%) 등 제약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62%	대형 가치주 ETF(IVE)	-1.38%
에너지섹터 ETF(OIH)	-4.90%	중형 가치주 ETF(IWS)	-1.48%
소매업체 ETF(XRT)	-0.96%	소형 가치주 ETF(IWN)	-1.27%
금융섹터 ETF(XLF)	-1.65%	대형 성장주 ETF(VUG)	-1.80%
기술섹터 ETF(XLK)	-2.36%	중형 성장주 ETF(IWP)	-1.5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82%	소형 성장주 ETF(IWO)	-0.93%
인터넷업체 ETF(FDN)	-1.92%	배당주 ETF(DVY)	-1.24%
리츠업체 ETF(XLRE)	-0.43%	신중국 고배당 ETF(DEM)	-3.31%
주택건설업체 ETF(XHB)	-0.77%	신중국 저변동성 ETF(EEMV)	-2.25%
바이오섹터 ETF(IBB)	-0.68%	미국 국채 ETF(IEF)	+0.68%
헬스케어 ETF(XLV)	-0.76%	하이일드 ETF(JNK)	-0.76%
곡물 ETF(DBA)	-1.60%	물가연동채 ETF(TIP)	+0.23%
반도체 ETF(SMH)	-4.03%	Long/short ETF(BTAL)	+1.4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17.87	-2.76%	-6.89%	-8.58%
소재	367.40	-2.10%	-4.32%	-4.69%
산업재	691.38	-1.87%	-2.87%	-0.03%
경기소비재	975.64	-1.52%	-2.99%	-1.59%
필수소비재	651.35	-0.32%	-0.79%	+0.61%
헬스케어	1,184.45	-0.74%	-2.73%	-0.61%
금융	496.28	-1.54%	-3.69%	-3.18%
IT	1,670.68	-2.36%	-2.06%	+3.49%
커뮤니케이션	185.29	-1.69%	-3.04%	+1.02%
유틸리티	346.20	-0.30%	+2.09%	+6.21%
부동산	247.14	-0.42%	+0.59%	+3.7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안전자산 선호심리 부각

MSCI 한국 지수 ETF 는 3.48% MSCI 신흥 지수 ETF 도 3.45%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휴장이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76.9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우한 폐렴 확산을 빌미로 최근 상승폭이 컸던 종목 위주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다. 특히 경제 활동 위축 우려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91%나 크게 하락하는 등 차익실현 매물 출회가 높았던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경제를 지탱하던 소비가 이번 사태로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는 등 경기 둔화 이슈가 유입된 점도 부담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춘절 첫날 이동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8.8%나 급감했다고 발표하고, 춘절 연휴를 연장하는 등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진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이다

그동안 주식시장 강세를 이끌었던 부분이 1 차 미-중 무역협상 타결로 심리지표 개선 기대가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는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위축 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2003 년 사스나 2015 년 메르스 사태를 감안하면 1 개분기 정도의 영향을 받은 이후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정책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한 것은 사실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주식시장은 환자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 조정을 보이다 환자 발생 속도가 완만하게 느려질 때부터는 반등에 성공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FOMC 에서의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과 기업실적, 그리고 춘절 이후 중국 정부의 행보에 대한 기대가 유입되며 조정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주택지표 부진

12 월 미국 신규주택 판매는 전월(69.7 만건) 이나 예상(72.8 만건)을 하회한 69.4 만건을 기록했다. 주택 재고는 전년 동기(7.4 개월) 보다 감소한 5.7 개월을 기록했으며, 판매 중간 가격은 전년 동기(32 만 9,700 달러) 보다 높은 33 만 1,400 달러를 기록했다.

1 월 달라스 연은 제조업지수는 전월(-3.2)나 예상(-3.1)을 상회한 -0.2 를 기록했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수주(1.6→17.6)가 크게 증가했으나, 고용지수(6.2→1.9)는 부진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역외 위안화 환율 달러 대비 약세 확대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하락했다. 이는 지난 4월 최고치인 66.6 달러 보다 20% 이상 하락해 약세장으로 돌입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중국 경제가 이번 사태로 위축 된다면 2019년 하루 1천만 배럴 수입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원유 소비국이기 때문에 국제유가에 지속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평가가 높아진 점도 부담이다.

달러화와 엔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한편, 역외 위안화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달러 대비 7 위안 가까이 상승했다. 중국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호주 달러도 달러 대비 1% 가까이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하락했다. 특히 춘절 연휴가 연장됨에 따라 중국의 경기 위축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 결과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10년물 국채금리가 1.6% 초반까지 하락하는 등 장기물의 하락폭이 컸다.

금은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자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중국 경기 위축 우려가 높아지자 급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은 휴장이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3.14	-1.94	-9.29	Dollar Index	97.931	+0.08	+0.33
브렌트유	59.32	-2.26	-9.02	EUR/USD	1.102	-0.05	-0.68
금	1,583.70	+0.35	+1.10	USD/JPY	108.88	-0.37	-1.18
은	18,056	-0.31	-0.09	GBP/USD	1.3057	-0.12	+0.36
알루미늄	1,764.00	-0.95	-2.65	USD/CHF	0.9694	-0.23	+0.10
전기동	5,743.00	-3.09	-8.24	AUD/USD	0.676	-1.05	-1.64
아연	2,240.00	-4.31	-8.35	USD/CAD	1.3187	+0.33	+1.07
옥수수	380.50	-1.74	-2.25	USD/BRL	4.2108	+0.69	+0.56
밀	572.25	-0.22	+0.31	USD/CNH	6.9847	+0.78	+1.71
대두	897.25	-0.53	-3.50	USD/KRW	1168.70	+0.35	+0.65
커피	106.60	-3.22	-4.95	USD/KRW NDF1M	1176.95	+0.66	+1.59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598	-8.62	-22.38	스페인	0.278	-6.60	-16.30
한국	1.700	-3.00	-0.50	포르투갈	0.303	-7.10	-18.10
일본	-0.044	-2.40	-5.40	그리스	1.162	-13.20	-24.20
독일	-0.385	-5.00	-16.70	이탈리아	1.035	-19.50	-31.60